

# INTERSTENO 중앙위원회 및 IPRS(각국 의회속기사부)

## 회의 참가 보고

국 제 부

1. 기 간 : 2010년 9. 28(화) ~ 10. 5(화)
2. 장 소 : 헝가리 부다페스트, 오스트리아 빈 경유
3. 한국대표 : 조영기(협회 전 국제이사)  
최윤정(협회 현 국제이사)  
이동준(협회 전 총무부장)  
김점동(협회 이사)
4. 참가국 및 참가 인원  
☞ 16개국 73명 참가(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중국, 체코, 독일,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세르비아, 스위스, 네덜란드, 터키, 미국 등)
5. 참가 목적
  - 기록문화와 속기에 관한 국제적 논의 및 발전방안 강구
  - 각국 의회의 속기 방식 및 회의록 발간 정보교류 및 현안 사항 논의
  - 우리나라의 속기 및 속기사 양성 체계의 홍보를 통한 국제적 위상 증대.
  - 선진국의 의회 속기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 교류.
6. 오스트리아 의회 방문 및 INTERSTENO 중앙위원회 · IPRS 일정

일 자	장 소	일 정
9월 30일(목)	빈	오스트리아 의회 방문 및 연방속기사 면담
10월 1일(금)	부다페스트	인터스테노 참가 등록 중앙위 1차 세션
10월 2일(토)	부다페스트	헝가리 의회 방문

		중앙위 2차 세션
10월 3일(일)	부다페스트	중앙위 3차 세션 경기대회 면담 Jari Niittuinperä 만찬
10월 4일(월)	부다페스트	IPRS 미팅
10월 5일(화)	프라하	체코 출발

7. 오스트리아 의회 방문 및 INTERSTENO 참석 주요 내용

① 오스트리아 의회 방문 (9월 30일)

- 오스트리아한국대사관 백환기 공사와  
오스트리아 의회 Lukas Mussi 국제협력관의  
안내로 그리스 신전을 모델로 1883년에 건립된  
오스트리아 의사당 참관



오스트리아 의회 앞에서

- 오스트리아 연방의회 속기사와 면담



오스트리아 속기사들과 함께

Evitta Friedrich(부과장), Bettina Brix, Caroline Pauser, 이상 3인의 오스트리아 속기사와 함께 “오스트리아 연방의회의 속기과 운영 체제 소개 및 장내소란 시의 기록 문제 토론”



오스트리아 의회 회의장 내부

옆에 그림은 오스트리아 의회 회의장 내부로 앞에 까만 의자가 놓여 있는 책상이 바로 속기사석임.

특이하게 3개의 책상이 있는데 이것은 수습 속기사용으로 회의장에 들어가 직접 실무를 경험해 볼 수 있어 수습 속기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듯하다.

## ② 중앙위 1차 세션(Council meeting: first session) (10월 1일)

- 개회식 및 회장(Gian Paolo Trivulzio) 환영사를 마치고 9월 초 미리 배포한 보고서를 승인함.(Comments and approval of the President's and Secretary's report spread beginning September 2010)
- 2009년 47차 베이징 총회 보고 (Report of the Congress in Beijing) 및 보고서 승인 (Approval of the minutes of the council meeting in Beijing)
- 2010년 1월 이사회를 통과한 예산 사용내역에 대해 중앙위원들에게 추가 설명함. (Explanations on the budget approved by the Board in January 2010 Rules for reimbursement of expenses)
- FIAT 참석 보고(Competitions and Congress of Parliamentary and court reporters of FIAT)

2010년 9월 23일부터 26일 사이에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FIAT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200명의 속기사들이 모여 속기경진대회가 열림. 인터스테노 측 대표로 Marcello Melani가 참가해서 회장의 메시지를 전달함. 다음 회의에서 인터스테노 회원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③ 중앙위 2차 세션(Council meeting: second session) (10월 2일)

- 인터스테노라는 명칭에 관한 규정(Updating of Intersteno name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processing') 검토.

인터스테노의 범위를 단지 속기와 타자에 국한시키지 않고 기록과 커뮤니케이션 및 이를 위한 IT분야에까지 확장시키자는 발상에 대부분 위원들이 찬성함.

다만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processing'에 있어서 'Communication'보다는 'Information'이 앞에 와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rocessing'으로 의견을 모음.

이 제안은 내년 파리 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임.



중앙위원회 회의 중

- 2011년 인터넷 경기대회 규칙(Internet competition 2010 & Internet competition 2011).

2011년 3월 26일부터 5월 6일 사이 있을 인터넷 경기대회의 참가 자격은 12세 이상 그룹에서는 1분당 150글자에 1% 이내의 오타자, 16세 이상 그룹은 1분당 180자 이상에 1% 이내의 오타자 수준임.

- 회원 가입 (Members: discussion on proposal for application for associated member. Members: approval of new individual members)

영국, 캐나다, 스페인, 미국 등 5건의 준회원 신청에 대해 검토하고 내년 총회에서 결정할 것.

- 교육위원회 보고 (Education Committee) 및 과학위원회 보고 (Scientific Committee report)

- IPRS 활동 보고 (IPRS activity by Rian Schwarz-vanPoppel)

상임위원인 Rian Schwarz-van Poppel로부터 2010년 7월 미국 찰스톤에서 열린 NVRA 대회와 8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NCRA 대회 참가에 대한 보고를 들음. 그들의 따뜻한 환영에 감사하고 만족스러운 대회였음.

④중앙위 3차 세션(Council meeting: third session) (10월 3일)

- 2011년 파리 총회에 대한 세부사항 점검(Plan for the next Congress in Paris)

프랑스 대표인 Jacqueline Bertin-Mahieux와 Jean Charles Le Masson가 2011년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될 파리 총회에 관한 개요 보고 및 토론.

총회 및 숙박 장소 선정에 대해 여러 위원들의 우려가 있었는데 현재 세 군데로 나누어 있는 총회 장소의 동선에 대한 염려와 총회 기간인 7월 14일이 프랑스 혁명기념일이어서 실질적으로 총회 진행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피력됨. 더불어 참가비에 대한 재검토 요구.

파리 총회 참가 등록은 2011년 1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터스테노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고 참가비는 총회 카드 발급 179유로, 경기대회 참가비 43유로와 만찬 및 관람비 128유로 등이다.

- 2011년 파리 총회 이후의 중앙위원회 및 총회 활동 제안(Proposals for Council and Congress meetings after Paris 2011)

지난해 베이징 총회에서 예고된 바와 같이 현 회장 Paolo Trivulzio 씨의 사임으로 새로운 집행부 선출이 필요, 중앙위원들은 올해 연말까지 회장을 포함한 7인의 이사회 임원에 대해 이메일을 통해 추천할 것임.

⑤의회속기사부(IPRS) 미팅 (10월 4일)

각국 의회 소속 속기사 65인이 참석하여 열린 의회속기사부 회의는 Rian Schwarz-van Poppel의 2010년 7월 미국 찰스톤에서 열린 NVRA 대회와 8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NCRA 대회 참가에 대한 보고로 시작되었다.

올해 IPRS 회의의 주제는 지난 7월 브루셀에서 개최된 '의회 회의록의 작성을 위한 기술적 방법들'(Technological Options for Capturing and Reporting)에 관한 추가적 의견제시와 토론이다.



IPRS 회의 중

흥미로운 제안으로는 각국 의회사무국과의 협조하에 IPRS 소속 속기사들이 속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의 기록 담당자를 초청하여 선진 속기제도를 참관하게 하고 속기술 교육을 돕는 안이 제안됨.

이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므로 각국으로 돌아가 담당자들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더불어 Marlene Rijkse와 Fabrizio Verruso에 의해 제안된 기술의 발달에 따른 속기사 양성과 교육(Recruiting and education of new reporters in view of the technical developments in the reporting field)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 8. 성 과

-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우리나라 의회의 제헌 이래 현재까지의 회의록 보존과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한국 의회의 속기와 기록문화의 선진성에 관한 홍보로 국제적 위상 제고
- 중국 측 대표단과 별도의 모임을 갖고 내년에 아시아 5국(한국,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속기협회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도록 합의함.
- 비정형적인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방법에 관한 다양한 사례 및 정보 교환.
- 속기사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대표단에 우리의 체계적이고 왕성한 속기사 양성 체계를 소개함.
- 중국 등 다른 나라의 기계속기 방식을 한국 기계속기에 접목할 연구 방안 기회 마련.

## 9. 건의사항

- 내년 아시아 5국 속기협회 회의 개최를 위한 자원 마련과 프로그램 개발 등 행사를 위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한국 의회의 선진적 회의록 작성·보존 및 체계적 속기사 양성에 관해 홍보함으로써 한국의 위상 제고와 급변하는 속기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터스테노 총회 등 공식적인 행사뿐 아니라 평소 각국 속기협회 간 비정기적 교류 활성화가 필요함.
- 최근 국내외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국고보조가 갈수록 줄어드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속기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가경비를 협회 예산에만 의존해서 하기보다는 후원금을 얻는다든지 자비 부담을 늘려 참가 기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요구됨.
- 국제속기경기대회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터넷을 통한 콘테스트 및 다양한 이벤트 참여 기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며 또한 국제교류협력사업이 시행되는 시기뿐만 아니라 연중 회원들의 관심을

제고시킬 방안 강구도 필요할 것임.

→ 2011년 인터넷 경기대회 (3월 26일 ~ 5월 6일)

→2011년 파리 총회(7월 10일 ~ 7월 15일)